

주님의 3년간 공생애를 보면 복음 전파와 함께 가르침을 통한 지도자 훈련에 사역 포커스를 맞추신 것을 볼 수 있다. 훈련 방법을 보면 저들의 삶속으로 들어가셔서, 삶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저들이 알아 듣기 쉽게 말씀하셨다. 때로는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사물들을 이용하셔서 교육을 하시므로 저들이 어려운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신 것이다. 때문에 멀게만 느꼈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쉽게 저들에게 다가 갈 수 있었고 이해를 하게 되니 저들은 깨달음을 통해서 놀라게 되었다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다. 복음 이해력에 있어 형식에 편중된 바리새인들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니 수 많은 군중이 따라다니게 되었다.

이러한 군중, 대부분은 '관중'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에 관심이 많았고,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고,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을 종종 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기를 원하지만 더 큰 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미션에 대한 관심이다.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음을 들고 세계로 퍼져 나가야 하는 사명을 위해서 12 명을 세우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시간과 열정과 기대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시간을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열중하신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군중들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수 훈련에 대한 주님의 열정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지상의 미션을 이어받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저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명령하셨다. 한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11 명의 사도들은 한 명(요한 사도)만을 제외하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하게 되었고 저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 모델을 따른다면 우리의 선교사역은 현지 지도자 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비록 적은 숫자가 될 수도 있지만 저들을 확실하고 훈련을 시켜 놓으면 선교사가 떠나도 저들은 남아서 자리를 지키고 자국 복음화와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일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물론 쉬운 일도 아니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다. 주님은 3 년에 해 놓으신 사역이지만 우리는 30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주님은 떠나신 이후에게 성령께서 저들을 계속해서 불을 붙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능력을 보여 주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역의 기본적인 것은 영성 교육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성 먼저라는 것이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12 명의 일꾼들을 사역 훈련시작하기 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면서 교육을 시작하였다 (사도행전 19 장).

1985 년 보르네오 섬 안중안 신학교가 세워질 때 나의 강의는 주로 선교와 관련된 과목을 가르쳤다. 당시만 해도 선교는 ‘외국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다. 그러나 선교가 외국인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크리스천이면 모두 책임져야 할 사명임을 강조하면서도 이러한 말이 저들에게 먹혀 들어갈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지난 6 월에 인도네시아 선교대회를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40 여년전에 뿌려 놓은 씨가 이제야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지였던 인도네시아를 선교국으로 만드신 것이다. 30 여명의 선교사들이 문화권이 비슷한 동남아시아에 파송 되어 현지인들처럼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많은 후보생들이 파송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은 이제 이들의 선교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아직은 인도네시아 경제적 상황이 우리 보다는 미약하기는 하지만 열성적으로 후원하는 작은 금액들이, 선교사들의 검소한 금액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선교비가 부족하기에 이기에 현지인처럼 살수 있다’고 말하는 저들의 모습에서 헌신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이제,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서에서 보여주는 많은 사람의 숫자에 관심이나 기대를 갖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적은 숫자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 사명을 이어 받고 있느냐 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선교운동을 보면서 이제는 현지에서 일어나는 선교 세력과 동역하는 선교가 제대로 된 선교모델이 아닌가 생각해야 하게 된다.